

해남 농업연구단지 ‘AI·스마트 농업’ 선도

국립센터 연계 탄소중립 연구 강화
스마트팜·임대농장 첨단 단지 확충
내년부터 기업·대학 공동 R&D 추진

해남군이 조성 중인 농업연구단지가 AI(인공지능)와 스마트 농업을 중심으로 한 농업 분야 기후변화 대응 거점으로 육성된다.

1일 해남군에 따르면 삼산면 평활리 일원에 약 100ha 면적으로 미래 농업을 이끌 농업연구단지를 조성 중이다.

특히 농업연구단지는 단지 내 조성 중인 국립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를 컨트롤타워로 해 농업 분야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지역의 신성장 동력을 아우르는 실증·연구단지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기후변화 적응과 AI·스마트농업, 저탄소·탄소중립, 기후 인력양성 등 연구와 실증, 보급이 함께 이루어지는 미래 농업의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확장할 예정이다.



해남군 삼산면 평활리에 조성 중인 농업연구단지 전경(왼쪽). 농업연구단지 조성 조감도.

2021년 공모에 선정된 국립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는 내년 착공할 예정으로 순조롭게 건립되고 있다.

우리나라 농업 분야 기후변화 대응의 전문·전담기관으로서 농업연구단지의 실증·연구 기능

과 병행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해남군 농업연구단지는 인공지능(AI)와 스마트 농업의 첨단 기술을 집약한 농업연구단지로 조성되고 있다.

농업연구 1단지는 고구마연구센터와 고구마



〈해남군 제공〉

육종 연구동, 과학영농 실증시험포, 청년 농업인 임대 농장 등이 운영에 돌입했다.

앞으로 고구마 스마트농업 실습장과 마늘 조직배양 시설, 민간 스마트농업단지 등의 시설과 함께 근무자 및 연구자, 농업인을 비롯해 전국의

방문객 등을 위해 숙소 및 편의시설, 교육 연구 시설 등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농업연구 2단지는 임대형 스마트팜, 스마트 집하장 그리고 기업과 연계한 종자 및 과수 생산·실증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며 원활한 기업 입주와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그린바이오 육성지구 지정도 함께 추진 중이다.

또한 해남군은 농업연구단지를 중심으로 오는 2026년부터 기업·대학과 긴밀히 협력해 농업 분야 R&D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기계수확용 품종 개발과 AI·스마트 발작물 농기계 개발, 영농형 태양광 모델 개발 등 품종 선택(종자)에서부터 AI·스마트농업과 저탄소·탄소중립 재배기술의 보급, 수확 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를 관리하는 농업 플랫폼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농업연구단지를 단순한 시험포장이 아니라 연구·실증·보급이 함께 이뤄지는 미래 농업 플랫폼으로서 누구나 활용하고 혁신하는 R&D 필드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남=박필용 기자

신안군, ‘문화’로 지방소멸 위기 돌파한다

전체 예산 4.66% 문화예술 투자
비율 전국 1위…과감한 행보 주목
독창적 프로젝트 지역 자생력 강화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신안군이 문화와 예술을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고 세계적인 관광 도시로의 도약을 꾀하고 있다. 특히 과감하고 지속적인 문화예술 분야 투자를 통해 전국 최고 수준의 예산 비율을 기록하며 주목받고 있다.

1일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예산 8천72억원 중 409억원(4.66%)을 문화예술 분야에 편성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문화예술 예산 비율 1위를 기록했다. 이는 국제적으로 문화 선진국의 기준으로 여겨지는 2%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로, 신안군의 문화예술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방증한다.

군의 투자는 국가 전체의 문화 재정 기조와 대비돼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은 정부 총예산(677조원)의 1.05%인 7조 1천244억원으로, 2020년 1.27% 이후 매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신안군 피아노 축제 모차르트 ‘피카로의 결혼’ 서곡 연주.

〈신안군 제공〉

국가적 문화 재정 축소 흐름 속에서도 신안군의 과감한 문화예술 투자 기조는 지방소멸 위기를 문화로 돌파하려는 혁신적인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군은 그동안 ‘1섬 1뮤지엄’, ‘1섬 1정원’ 조성 사업을 필두로 피아노 축제, 삼막 예술 축제 등 문화·예술·역사·자연이 조화된 다채로운 프로젝트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군 관계자는 “신안군은 세계적인 문화예술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자하고 군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문화와 예술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아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문화예술 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양훈 기자

여수 제조업체들 4분기 경기전망 여전히 ‘부진’

BSI 지수 52.1…전분기比 3.6p ↓
글로벌 수요 부진·공급 과잉 주요
전기로 감면·사업재원 등 지원 시급

여수 지역 제조업체들의 4분기 경기 전망이 여전히 부진할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수요 부진과 공급 과잉, 여수산단 장기 불황 여파 등이 겹치며 체감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여수상회에 따르면 여수지역 186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4/4분기 기업 경기전망조사(BSI)’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2025년 4/4분기 BSI는 52.1로 전분기 55.7 대비 3.6p 하락해 부정적 전망이 더욱 짙

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는 71개 사가 응답하여 회수율은 38.2%였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석유화학 연관업종은 52.4로 전 분기 46.2 대비 6.2p 상승했으나 여전히 기준치를 크게 밑돌았다. 일반 제조업은 51.7로 전 분기 67.7 대비 16 p 급락해 체감경기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석유화학업종은 중국의 노후 설비 감소, 단기적 유가 안정, 제품 스프레드 소폭 개선 등 일부 긍정 요인이 있었다. 그러나 글로벌 수요 부진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중국과 중동발 공급 과잉이 이어지며 범용제품의 경쟁력이 약화됐다.

여기에 정부 지원책도 가시화되지 못해 사업재원이 난항을 겪으면서 회복세가 나타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제조업은 여수산단 장기불황의 여파로 수출·하도급 물량 감소, 고용 불안 등이 이어졌으며, 가계 여건 악화로 인한 소비 위축과 지역 이미지 하락에 따른 관광업 부진까지 겹치며 체감경기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기업들이 지직한 매출 증대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내수시장 침체(47.9%)가 가장 많았고 ▲원자재가 상승(35.2%) ▲기업 자금 사정 악화(42.3%)도 주요 부담으로 꼽혔다.

여수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석유화학산업의 전례 없는 불황이 단일 산업을 넘어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며 기업 경기 전망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기업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전기도 감면, 산업 재원 지원 등 국가 차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영광군 체육회, 20년 만에 새 보금자리 마련

영광군 체육회는 1일 “지난달 29일 20년 만에 새 사무실을 마련하고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행사에는 장세일 영광군수, 이개호 국회의원, 김강현 군의회 의장, 송진호 전남체육회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새 사무실은 영광스포츠크터 2층에 자리 잡

아 종목단체와 동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소통 공간으로 꾸며졌다.

정병환 영광군 체육회장은 “군민과 함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돼 뜻깊다”며 “체육 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체육 활성화의 도약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장세일 군수는 “이번 이전으로 업무 효율성과



종목단체 협업이 강화될 것”이라며 “군민 모두가 체육을 통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지정·조성계획 승인

3천700억 투자·(주)LF리조트 시행
골프장·콘도·휴양문화시설 등 조성

광양시는 1일 “전남지사로부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주)LF리조트가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광양항 배후 황금동·황길동 일원 207만㎡ 부지에 3천700억원을 투입해 ▲27홀 골프장 ▲220실 규모 콘도미니엄 ▲휴양문화시설 13종 등을 갖춘 대규모 관광휴양단지를 2030년까지 조성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2017년 개장한 ‘LF스퀘어’의 지역 협력사업에서 출발해 2019년 사업제안서 제출 이후 부지 매입과 행정 절차를 거쳐 2년4개월 만에 결실을 맺었다.

광양시는 민간 투자자와 전남도, 행정이 긴밀히 협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LF네트웍스는 현지법인인 (주)LF리조트를 설립해 자금을 투자했고, 광양시는 업무협약과 전담팀을 통해 토지 매입, 진입도로 개설 등 행정 지원을 이어왔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광양시 최초의 관광단지 지정 승인을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구봉산권이 남해안 관광벨트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양훈 기자

담양군, 추석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정철원 군수 “지역 상권 활력 되찾길”

담양군은 1일 “지난달 30일 추석을 앞두고 창평임시시장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 이용 촉진을 위한 ‘추석맞이 장보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철원 군수는 창평시장에서 직접 장을 보며 상인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상품권 할인 정책을 알리며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하는 캠페인도 펼쳤다. 〈사진〉

행사는 창평임시시장을 시작으로 2일까지 담양상설시장 등 관내 전통시장으로 이어진다.

군은 군민 체감 혜택을 높이기 위해 예산 소진 시까지 담양사랑상품권을 15% 특별 할인 판매한다. 이를 통해 주민 생활비 부담을 덜고 소



상공인 매출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철원 군수는 “이번 장보기 행사가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이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해양교통안전공 목포지사, 어업인 무료 건강검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목포지사는 1일 “지난달 30일 대한결핵협회와 협력해 지사 내 이동검진차량에서 지역 어업인과 외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검진은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선박 종사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검진에는 188명이 참여해 흉부 X-선 촬영, 골밀도 검사, 청력 검사 등 다양한 항목을 통해 건

강 상태를 점검했다. 특히 외국인 선원들도 함께 참여해 평소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서무천 목포지사장은 “선원들의 건강과 체력은 해양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검진은 인적 과실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 목포지사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목포=정해선 기자